

국립예술단체 현장 간담회는 추가경정예산 (추경) 편성과는 무관하며, 202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함입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1.30. 한국경제는 「“예산처가 ‘예술의전당’ 왜 가요?”...뜻밖의 상황 벌어진 까닭」 기사에서,
 - “국립발레단·무용단 만나는 예산처...힘받는 ‘문화추경론’”, “이재명 대통령이 올들어 문화·예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추경의 밑 작업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위 보도에서 해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 간담회는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.
- 이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는 무관하며, 현재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예산과	책임자	과장	정성원 (044-214-2550)
		담당자	서기관	이국희 (davebona@korea.kr)
주무관	고동성 (klkj022@korea.kr)			